

노 재 승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작품 “존재적 욕망” 에 관한 조형성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06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환경미술학과 조각전공

김 의 구

# 작품 “존재적 욕망” 에 관한 조형성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노 재 승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환경미술학과 조각전공

김 의 구

# 인 준 서

김의구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2005년 12월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작품 「존재적 욕망」에 관한 조형성 연구

김 의 구

## 논문 개요

인류는 그 변화의 속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해왔다. 문명의 이기는 인간에게 삶의 편리와 윤택함을 주었지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인간은 점점 자신을 잃고 획일화되었다. 오늘날 인간은 자신의 존재(存在) 자체를 잊고 살아가며 그 존재의 이유마저 잃어가고 있다.

본인은 이러한 시각에서 ‘무엇이 그것을 있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다. 이 질문은 ‘존재’에 대한 고찰에서 그 존재를 지속시켜 주는 ‘에너지’에 대한 것으로 확장되었다. 본 논문에서 논할 작품들의 모티프는 바로 그 에너지에 관한 것이다.

인류와 생명체들은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 탄생을 거듭하면서 그 맥을 유지해 왔다. 본인은 그 맥을 유지하는 힘의 원천을 인간 내면의 ‘존재’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본능적 또는 후천적 ‘욕망’이라 본다. 이때 ‘욕망’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무엇을 탐하는 간절한 마음이란 뜻의 부정적 의미보다는 인류존재의 원동력으로서 즉자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본인은 이것을 인류의 영속성을 지탱해주는 본능적 열망 에너지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 결국 본인의 작품들은 존재의 영속성을 위한 욕망의 내·외적 현상들이 발산되는 탄생과 소멸의 순간을 표현한 것이라 요약되어질 수 있겠다.

본 논문은 본인의 작품의 이론적 배경에서부터 소재의 상징성과 표현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작품의 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하고 있다.

본 논문은 크게 총 3장으로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있다.

제 1장 서론에서는 작품 주제설정 동기와 연구 목적을 설명하였다.

제 2장 본론에서는 작품의 정신적 배경과 형태적 근거를 서술하였으며 작품 분석은 이미지를 통한 제작 의도와 제작기법 등을 기술하였다.

제 3장 결론에서는 연구의 요약 및 본인의 작품세계를 정리하며 앞으로의 작업관을 확립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3
1. 이론적 배경 .....	3
1) 형이상학적 접근 .....	3
2) 존재를 위한 욕망(慾望) .....	4
2. 형태적 근거 .....	5
3. 작품 분석 .....	7
III. 결론 .....	20

## 참고 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 작품 1 ] 존재적 욕망- 동, 알루미늄 25×10×60cm, 2003 .....	8
[ 작품 2 ] 존재적 욕망- 동, 스테인리스 150×40×250cm, 2003 .....	10
[ 작품 3 ] 존재적 욕망 - 스테인리스 150×100×160cm, 2003 .....	12
[ 작품 4 ] 존재적 욕망 - 스테인리스 30×25×40cm, 2004 .....	14
[ 작품 5 ] 존재적 욕망 - 스테인리스 150×150×300cm, 2004 .....	16
[ 작품 6 ] 존재적 욕망 - 스테인리스 160×220×300cm, 2004 .....	18

# I . 서 론

인간의 생(性)을 말함에 있어서 존재를 알지 못하고서 그 진리를 논할 수 없을 것이다. 인류는 항상 존재의 본질을 찾아 나섰으며 수많은 철학자와 과학자, 예술가들은 존재의 근원과 본질을 연구해 왔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대표적인 시인이자 비평가였던 Matthew Arnold는 존재의 고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삶에 관해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지도를 지니지 않은 채 낯선 곳으로 떠나는 나그네와 같다. 길을 잃고 방향 감각을 상실한 사람에게는 이 길이나 저 길이나 마찬가지로이다. 그런 사람이 가 볼만한 곳에 가게 될 확률은 순전히 우연에 지나지 않는다.” 삶의 본질을 잊고 살아간다면 생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 인간은 현대사회의 소외 속에서 정신적 주체의 존재가 아닌 발달된 문명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날의 이런 상황은 점점 물질이 정신을 지배하는 듯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본인의 의구심은 존재의 근원에 관한 고찰로 이어지게 되었다.

인간은 사유하는 존재로서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에 한계를 느낄 때 절대자를 능가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또한 의식이 아닌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있을 때 경험세계를 초월하는 존재에 관해 생각하게 된다. 여기서 ‘존재’ 자체에 관한 것이 모든 질문의 근원이 될 것이다.

서구 철학의 첫 문제도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모든 사물의 기원’을 묻는 물음으로 시작되었다. 그것은 모든 사물(유 혹은 존재자)의 기원 문제로 나타났는데, 플라톤과 칸트, 하이데거에 이르기까지 철학의 궁극적 주제는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으며 또 그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였고, ‘인간이란 무엇인가?’였다. 이런 기원 문제는 어떠한 원인이 사물들을 있게 하는지의 문제였다. 본 논문에서 논할 본인의 작품들은 이러한 사유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쉽게 간과되는 인간 존재에 관한 물음을 가질 때 생기는 초월적인 것의 내면적 접근을 통하여 존재를 지속시켜 주는 대상을 분석하고 표현 하는데 있다.

존재를 위한 에너지의 원천은 본능적으로 영속성을 위한 욕망이라고 보며 존재는 다름 아닌 그 끊임없는 욕망을 바탕으로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그 영속성을 위한 욕망의 찰나들을 표현하고, 그것을 작품화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생명의 영속성을 위한 본능적 욕망 에너지의 발산 순간을 조형화한 본인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 Ⅱ. 본 론

### 1. 작품의 이론적 배경

#### 1) 형이상학적 접근

본인은 인류를 유지시켜 오는 무한의 에너지를 ‘존재에 대한 욕망’으로 파악하며, 그것을 영속성의 원천이라 생각한다. 존재에 대한 형상화 작업은 사물을 바라봄에 있어서 그 근원을 파고 들어가는 경험세계를 초월하여 존재의 본질에 관해 궁극적 원인을 체계적으로 살피면서,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하는 형이상학 이론을 바탕으로 접근하였다.

형이상학에서 말하는 ‘존재’는 존재론·우주론·신학·심리학·논리학 등을 포함하며 유(有)의 전체로 본다. ‘유(有)’를 궁극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보고 ‘나타난 것’ 즉 현상을 ‘있는 것’의 ‘나타남’이라고 볼 때, 물리학이 경험하는 세계에 나타난 것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반하여 형이상학은 그 나타난 것의 근원이면서 경험할 수 없는 초경험적·초월적인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결국 형이상학에서 본질(essence)은 ‘그것이 무엇이나?’이고, 존재(to be)는 ‘그것이 있느냐?’이다.

본인은 형이상학자들이 주장해 왔던 존재의 본질을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생(生)을 살아가는 이유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시시각각 급변하는 오늘날 존재의 의미에 대한 고찰이 ‘존재의 영속을 위한 욕망’의 출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존재의 영속을 위한 욕망(慾望)

욕망이란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욕망의 주체인 인간은 불완전한 자아에 대한 결핍으로 인해 그러한 욕구를 끊임없이 갖게 된다.

동물들도 성욕, 수면욕, 식욕 등 욕망을 가지지만 그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이다. 데카르트가 언급했듯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고로 존재한다.<sup>1)</sup> 인간도 동물이 가진 기본적인 욕망을 지니지만, 인간은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사고(思考)를 바탕으로 한 인간의 존재에 대한 욕망은 인류의 진보를 가져왔다.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오로지 욕구 충족을 시키기 위해 인간이 지켜야할 기본적 윤리마저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더 나아가 사람이 욕구 자체에 집착하게 되어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목표만을 생각하여 자신을 잃어버리는 인간소외 현상까지 생기기도 한다. 물론 인간은 개인에 따라 즉,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가진 욕망이 다르고 어느 상황에 있든 저마다의 욕망을 가지며 모든 욕망을 충족시키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을 단순히 위와 같이 당면한 현실에 대한 욕구충족으로만 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자아와 심신의 성숙을 위한 것이라 파악하고 더 나아가 태초부터 불완전한 존재가 그 완전성에 대한 욕망을 채워가기 위한 노력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

---

1) 근세철학의 시조,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가 말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란 명제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가 아니라 신이 아닌 내가 직접 생각하는 주체가 이기에 내가 존재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다. 즉 불완전한 존재의 완전에 대한 ‘욕망’은 본질적으로 그 존재의 긍정적 원동력인 것이다.

그런데 욕망은 내적 동력만으로 발기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과 상호할 때 촉발한다. 인간 사회에 한정해서 살펴본다면, 인간의 사회화 과정, 자문화와 타 문화와의 관계 수립과정, 그리고 서로 공유하도록 운명 지어진 재현화 과정을 그 시작이라 볼 수 있겠다. 이런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연계되거나 종속되면서 지속되는 존재의 영속성은 그 과정을 통하여 외부와 관계하며 그 욕망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인은 ‘욕망’을 표현함에 있어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의 영원성을 위한 확산의 에너지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부정적이 아닌 인류존재의 긍정적 원동력인 것이다.

## 2. 형태의 근거

과거 없는 미래가 있을 수 없듯이 역사성을 배제하고 현재가 있을 수 없다. 본인의 작품 속에도 시간성이 존재한다. 앞서 말한 존재의 본질과 그 영속성에 대한 욕망을 구체화 하기위해 본인은 ‘영속성을 위한 에너지-욕망’이란 표현을 썼다. 본능적 확산을 위한 욕망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리비도(libido)와 같은 것이라 이해할 수 있겠다.<sup>2)</sup> 다시 말해 존재는 삶이며, 삶

---

2) 리비도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본능에너지로, 정신분석학에서, 무의식의 심층에서 나오는 인간 행동의 바탕이 되는 근원적인 욕구이다. 원래는 라틴어로 욕망을 뜻하는 단어이다. 성적인 욕구가 내부로 향하느냐 외부의 객체에게로 향하느냐에 따라 자아 리비도와 대상 리비도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경우이든

은 유한하고, 그 유한성은 욕망으로 이루어진 재생성의 과정에 의해 확산되며, 욕망은 불변의 영속성을 지니게 하는 힘의 원천으로 작용하게 된다.

존재의 영속성을 위한 욕망의 발산은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유지되는데, 본인의 작품에서 취한 것은 영속을 위한 생성과 소멸의 단계의 순간을 포착하고 형상화 하였다. 즉 존재의 영속성을 갈망하는 인간은 탄생과 죽음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영속성에 대한 욕망의 확산은 성욕, 번식, 분할, 탄생과정 등을 통해 보여 지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들의 순간성이 작품화 된 것이다.

형이상학적 접근은 인간의 시야에서 보여지는, 가시광선에 의한 관점이 아닌 플라톤의 이데아적 관점이다.<sup>3)</sup> 본인의 작품에서 ‘욕망’은 이러한 형이상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작품들은, 형이상학에서 말하는 일차적인 존재의 해석에 입각하여, 기본 개념의 형상성에 이데아적 해석을 더하여 제작하여 관람자의 막연함에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

욕망이 만족을 향해 움직일 때 동원되는 에너지 전체를 지칭한다.

3) 이데아는 플라톤 철학의 기본개념으로 욕망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며, 이성만이 파악할 수 있는 영원불변하고 단일한 세계를 이루어, 끊임없이 변천하는 잡다한 감각세계의 사물과는 구별된다.

### 3. 작품 분석

욕망은 결핍에서 비롯된다. 존재는 이데아적 발상에 의해 확산 에너지를 받으면서 그 결핍을 채워나간다. 존재의 영속을 위한 욕망은 작품의 소재가 되어 본인의 주관적 관점으로 분석, 형상화되었다.

이러한 욕망의 확산은 불변의 영속성으로 표현하기 위해 산화되지 않는 금속을 주재료로 삼았으며, 욕망의 변질, 확산, 탄생의 시간적인 순간은 사각의 틀 안에서 균열이 가고 있는 투명한 소재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표현법은 주로 확산의 욕망을 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수직적으로 상승하거나 내적 응축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이데아를 품고 있는 유충의 형상은 내적 리비도의 욕망발산 직전의 순간을 포착하여 형상화였다. 유기체적 형상이 응집하여 상승하는 듯한 표현을 한 것은 집단 속에서 야기되는 개인의 동질화와 차이, 집단적 힘, 공간의 경험 등에 관해 관람객과 나에게 던져보는 또 하나의 질문이기도 한 것이다.



[작품1] 존재적 욕망 동, 알루미늄 25 × 10 × 60cm, 2003

[작품1] 존재적 욕망

재료 : 동, 알루미늄

크기 : 25 × 10 × 60cm

제작연도 : 2003

제작방법 : 유충의 기초 형태를 골조 작업 후 동판을 Tig용접하였고 안쪽의 유기체적인 곡선은 알루미늄 환봉을 열을 가하여 계획에 맞게 가공 후에 표면처리 후 동판에 접합 하였다. 동판의 표면은 화공약품 유화가리로 질감을 표현했다.

욕망은 재생성에 의해 확산된다.

형태를 하고 있는 작품은 내적으로 확산의 욕망을 품은 채 발산하기 직전의 상황을 난형적 응집체의 외형 체를 빌려와서 내적 욕망을 유입시켜 표현 하였다.

수직적 구도로 상승적 느낌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욕망의 리비도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으며,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성기를 상상하거나 벌레의 유충을 상상할 수 있다

탄생으로서의 욕망이 발산되기 직전의 상황을 포착하여 형상화 했다



[작품2] 존재적 욕망 -동, 스테인리스 150 × 40 × 250cm, 2003

[작품2] 존재적 욕망

재료 : 동, 스테인리스

크기 : 150 × 40 × 250cm

제작연도 :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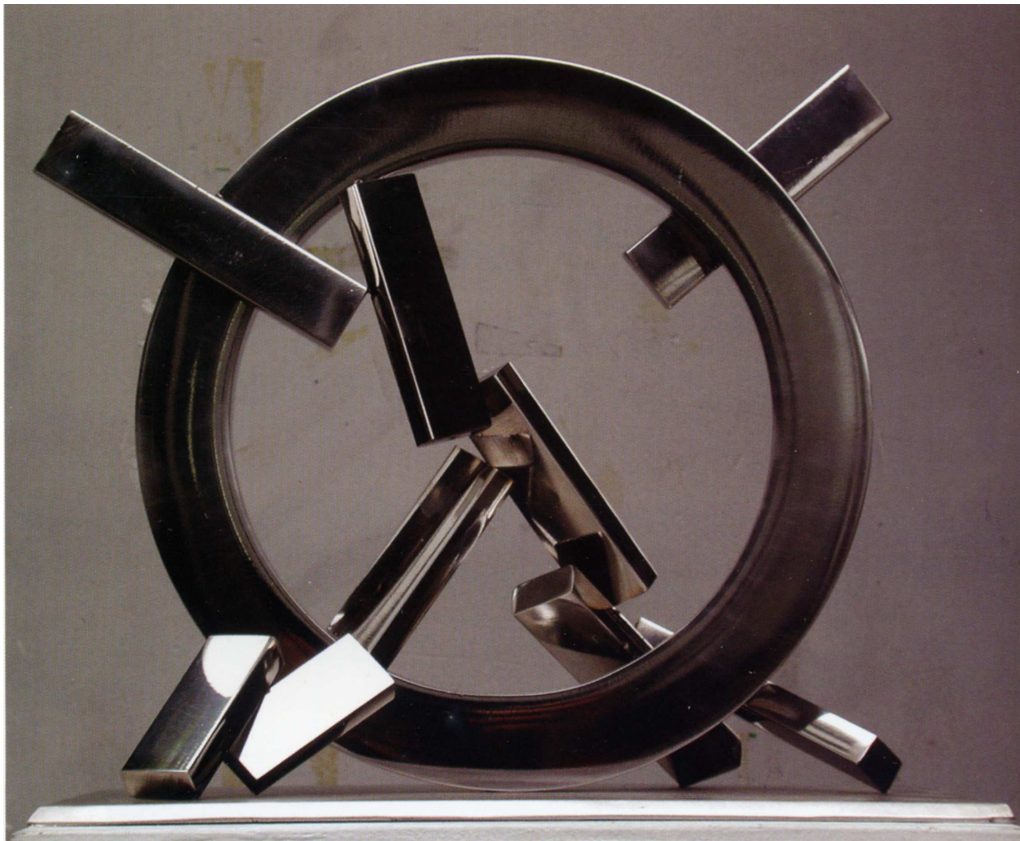
제작방법 : 유충의 기초 형태를 골조 작업 후 동판을 Tig용접하였고 스테인리스 기둥은 밴딩 후 절단하여 접합 후에 가공된 유충 형태의 동판과 같이 고정 용접한다.

동판의 표면은 화공약품 유화가리로 질감을 표현했다. 마감으로 표면에 광택처리를 했다.

본 작품은 수직 수평의 안정적인 구도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표면의 부식을 통해 세월의 흔적을 나타내주는 동판이 견고하게 용접되어 있다.

중심부의 동판은 욕망의 집약체이며 탄생의 이데아를 의미한다. 탄생의 이데아를 감싸고 있는 스테인리스 기둥은 욕망을 가지는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존재임을 나타내는데 이는 사회화 과정과 문화적 관계의 수립, 그리고 서로 공유하도록 운명 지어진 재현화 과정의 시작임을 표현하고 있다.

감상자로 하여금 내재되어 있는 존재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품으며 공동체적 구성원으로서의 존재로 현실을 파악하게 한다.



[작품3] 존재적 욕망 - 스테인리스 150 × 100 × 160cm, 2003

[작품3] 존재적 욕망

재료 : 스테인리스

크기 : 50 × 100 × 16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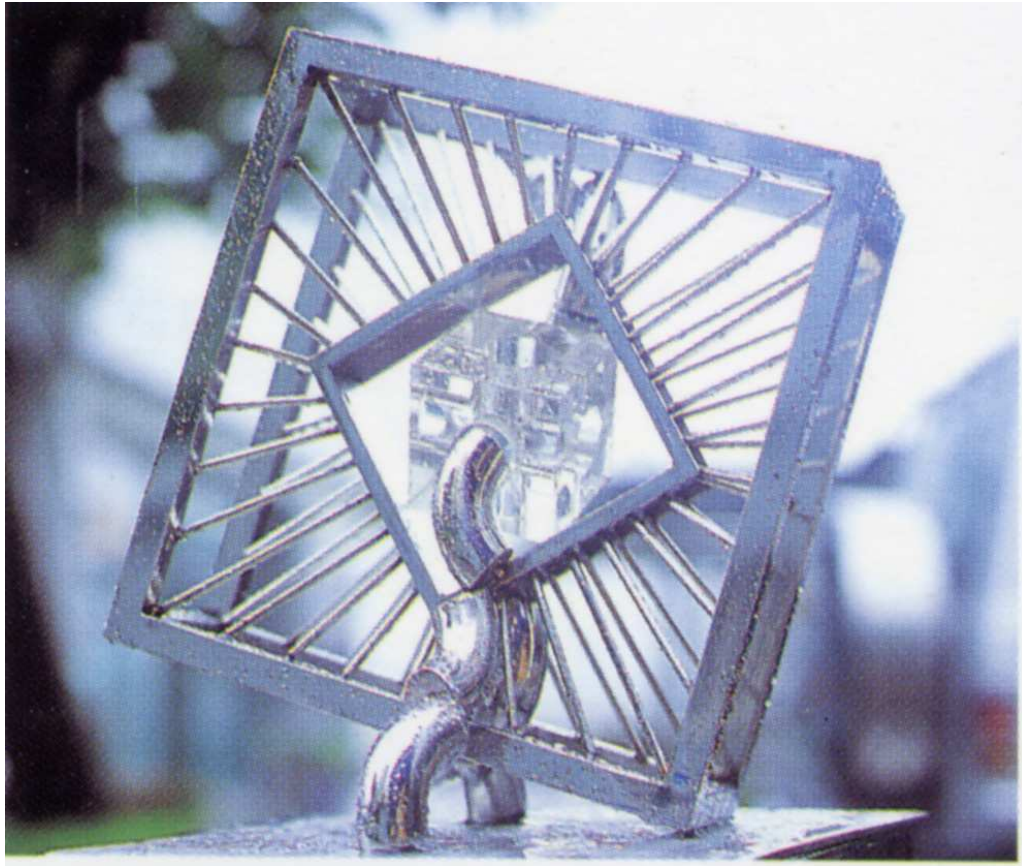
제작연도 : 2003

제작방법 : 스테인리스를 레이저 절단하여 표면 광택 처리한 후 바닥 면 좌대를 에어샌더 부직포로 연마하고 좌대에 순서에 맞게 Tig용접 한다.

전체 원형의 구도에 부착되어진 다수의 육면체들은 대칭 구도를 지니고 있으며 이 또한 사회적 존재의 구성원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욕망은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 욕망의 재탄생을 나타낸 작품으로 순환성을 바탕으로 제작하였다. 둥근 원은 사회적 조직체를 말하며 거기에 엉겨 붙어 있는 사각의 기둥들은 사회적 존재들의 재탄생을 바라는 욕망인 것이다.

광택 처리 된 스테인리스는 변하지 않는 영속적 의미로서 사용되었으며 불멸과 확산을 갈망하는 욕망적 존재로의 사회구성원임을 표현하고 있다.



[작품4] 존재적 욕망 - 스테인리스 30 × 25 × 40cm, 2004

[작품4] 존재적 욕망

재료 : 스테인리스, 아크릴

크기 : 30 × 25 × 40cm

제작연도 : 2004

제작방법 : 스테인리스 각봉을 절단하여 표면을 폴리싱 처리한 사각틀을 만들고 면 중심의 또 다른 사각형을 길이에 맞게 잘라진 환봉으로 고정하여 용접하고 중심부의 아크릴은 좌우상하 구멍이 관통되게 뚫어서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하고 스텐레스스틸에 접합한다. 좌대는 부직포로 연마하고 계획에 맞게 차례대로 Tig용접한다.

본 작품도 종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의 집약체이며 삶의 긍정적 원동력을 내포하고 있다.

중심의 큐브와 같은 아크릴 구조물은 도덕과 종교가 억압하는 우리의 리비도를 해방시키자는 의미의 해방적 욕망을 나타내고 있다. 큰 사각 안쪽의 작은 사각은 욕망이며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여러 개의 스테인리스 기둥들은 사회 조직을 나타내고 있다.



[작품5] 존재적 욕망 -스테인리스, 투명수지 150 × 150 × 300cm, 2004

[작품5] 존재적 욕망

재료 : 스테인리스, 투명수지

크기 : 150 × 150 × 300cm

제작연도 : 2004

제작방법 :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각면 절단하여 정사각의 형태를 만들어 용접하고 사각의 틀에 유기체적 형태들이 상승 접합되며 상층부에 투명 수지는 경화제와 촉진제의 양을 기준치 보다 15배 정도 더함으로써 균열이 생기게 하여 균힌 후 다시 정량을 사용한 수지를 부어서 사각의 균열이 가 있는 투명상자를 만들어 상층부의 또 다른 사각 틀과 접합한다.

상하 대칭의 사각 틀 안에서 수직으로 상승하는 유기체와 그 중간에 어떤 응축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형태로 사각의 형태는 사회적 틀을 이야기 하며 그 틀의 형상에서 발산되는 유기체적 형상은 욕망의 발산을 나타내고 있다.

중심부의 수많은 균열이 교차하고 있는 박스의 형태는 욕망의 결정체이며 그 안에는 생성과 소멸 그리고 재탄생의 상황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인간사의 집약을 담았다.

본인은 존재에 관한 에너지를 형이상학적 욕망의 실체로 생각하고 있고, 본질은 존재 자체의 의미를 찾는 것을 말한다.



[작품6] 존재적 욕망 -스테인리스, 투명수지, h뵁 160 × 220 × 300cm, 2005

[작품6] 존재적 욕망

재료 : 스테인레스스틸, 철, 투명수지

크기 : 220 × 160 × 320cm

제작연도 : 2005

제작방법 : 스테인리스 판을 유압으로 압착 롤링 하여 원판을 제작하였고 H빔으로 사각의 틀을 제작한 다음 가운데 원을 고정하고 면을 분할하여 투명의 균열이 간 투명의 수지로 채워 넣는다.  
H빔과 바닥은 앵커볼트로 고정한다.

사각의 틀을 기초로 하여 좌우로 대칭되는 구도를 지니고 있다. 좌우의 원형은 내면의 욕망을 담고 있다가 분출되는 형상을 근거로 하여 만든 형상이며 내부의 유기체적 구조는 사회와 존재적 욕망의 연결고리를 나타내고 있다. 근원을 증명 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신성학적으로나 규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작품을 통해 존재적 본질을 깨닫고 더 나은 생존을 꿈꾸는 진보의 욕망과 탄생, 소멸 등을 응축하여 표현 하였다.

## 4. 결 론

내 눈앞에 보이는 이미지는 이미 과거의 형상이며 내일은 이미 오늘이 될 만큼 빠른 세상이다. 머리카락이 나자마자 우리는 욕망이라는 것에 둘러싸여 서 산다. 그러한 욕망은 존재적 사물, 혹은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다양한 단어의 욕구로 표현되며 인류가 지속되는 한 그 끝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에 결국 욕망의 힘으로 인문학적 과학적 진보를 뒷받침해 올 수 있었다. 세상은 존재적 사물의 욕망을 꿈꾸며 살아가고 생존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되며 다양한 종류의 억압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며 파괴가 아닌 탄생의 힘으로 욕망을 이어나가고 있다. 문명은 변하고 있으며 예술은 시대를 반영하며 다음 시대를 예고한다. 예술이 역사와 시대를 반영함으로써 역사를 기록하는 또 다른 역사가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인류역사의 숨겨진 원동력이었던 본능적 욕망에 대해 다시 고찰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 숨차 오르게 하는 욕망의 원동력을 앞으로도 작품의 소재로 삼을 것이다. 이 땅에 생(生)의 에너지 리비도가 존재하는 한 예술가의 에너지도 계속 될 것이며 본인은 다각적 분석과 연구로 더 나은 작품의 표현을 위해 노력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강준만 , 『이미지와 의 전쟁』, 개마고원 ; 서울, 2000
- 로저트리그, 『인간본성에 관한 10가지 철학적 성찰』, 최용철, 자작나무;서울, 1996
- 말렉슈벨 , 『욕망에 대하여』, 서민원, 현대신서 ; 서울, 2001
- 마르틴 하이데거, 『칸트와 형이상학의 문제』, 이선일역, 한길사 ; 서울, 2001
- 미셸 아르, 『예술 작품 : 작품 존재론 시론』, 공정아역, 동문선 ; 서울, 2005
- 박홍규, 『형이상학 연구』, 민음사 ; 서울, 2004
- 볼프강 벨슈, 『미학의 경계를 넘어』, 심혜련역, 향연 ; 서울, 2002
- 송석량, 『(메를로 뽉띠의) 철학 : 존재와 예술과 진리의 현상학』, 문경출판사 ; 대전, 2005
- 아브라함 H. 매슬로, 『존재의 심리학』, 정태연, 노현정 공역, 문예 ; 서울, 2005
- 이상백, 『“존재와 시간의” 사유』,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4
- 이좌용, 『존재론 연구』, 철학과 현실사 ; 서울, 2005
- 전세화, 『광고가 들려주는 문화 이야기』, 예경 ; 서울, 2004
- 정순복, 『일상의 미학 1』, 예전사 ; 서울, 2004
- 정순복, 『일상의 미학 2』, 예전사 ; 서울, 2004
- 정의채, 『형이상학』, 성바오로출판사 ; 서울, 1992

화이트헤드, 『관념의 모험』, 오영환역, 한길사 ; 서울, 1996

#### **학위 논문 및 학회지**

김선규, “존재물음과 존재이해: 하이데커의 『존재와 시간』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서양철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김아미, “라캉의 주체 형성 과정을 통해서 본 시각의 타자성 연구”, 서울대학교 미학과 석사 논문, 2005

이좌용, "존재론: 그 형이상학의 영원한 주제, 존재론 연구 1", 서평문화 제 58집, 2005 여름, pp.54-60

# ABSTRACT

## A Study on Formativeness of “Existential Desire”

- Centering on My Work -

Kim, Yeui Gu

Majored in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plastic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Humans have changed at a speed that can’t be measured. Although the benefits of civilization brought humans convenience of life and abundance, humans have lost their uniqueness and become standardized. In these times, human beings have no longer the cause of their existence, forgetting their identity.

At this point, I questioned ‘what made it exist?’ The question was also expanded to the ‘energy’ that maintained the existence in the consideration. The motives of the work in this study were about the ‘energy.’

Humans and all the living things continued their life repeating creation, disappear, and birth in cycle. For me, the source of the power that supports the cycle seemed instinctive or learned ‘desire’ to keep up

the 'existence' inside humans. The 'desire' is not a negative meaning often used to describe fervent indulgence, but a propelling power of human society identified immediately. I restricted it to instinctive enthusiastic energy sustaining the continuity of human beings. My works, therefore, can be summarized to express the moment of birth and disappear that emit the interior and exterior phenomenon of desire for continual existence.

This study focused on the themes of works, specifically explain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my works, symbolism of material, and the method of expression.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chapters like this;

The first chapter, introduction, is about the motives of setting the works' themes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second chapter, body, shows spiritual background and formative basis of the works and analyzes the works completed with intentions and methods through images.

The final chapter, conclusion, puts the summary of this study and ideology of my work into shape and put forward the direction that guide my views in the future.